

# 아파트 평면의 실 크기와 치수 특성에 관한 연구

-2000~2007년 건설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 A Study on Areal &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Unit Plans

김준래\*      윤재신\*\*      김민경\*\*\*  
Kim, Jun Lae    Yoon, Chae Shin    Kim, Min-Kyo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licit a dwelling standard for the low-income group as belong to future socially underprivileged class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average size of each zone in plane figures of the apartment. The investigation has been executed to 2 kinds of plane pictures of the most spread exclusive using area scale: 85m<sup>2</sup> and 65m<sup>2</sup>, which would be a groundwork of data to harmonize with the future dwelling needs, especially those of low-income group.

312 cases were selected to be investigated about each floor space of the living room, the main room, room1, room2, and the kitchen based on wall distance, to be calculated and charted about the average and the proportion of width and depth of each zone. The investigation about how those elements effect to the overall width and depth of the apartment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and the floor space shape executed as well.

Keyword : Unit plan, Width, Depth, Proportion of Room, Room Area

주요어 : 아파트 평면, 전면폭, 깊이, 전면폭과 깊이의 비, 실 면적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량생산방식에 의해 보급되어 온 아파트는 현재 한국의 주거를 대표하는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나 평면유형의 획일화, 고착화현상이 지속되어 오면서 비판이 자주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이는 바꾸어 말하면, 특정 유형으로 고착화된 평면유형이 한국인의 주거양식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호응을 얻었고, 이로 인해 평면의 다양성에 대한 노력보다는 적합한 유형을 찾아 적용하는데 편중되었다고도 해석 가능하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거공간의 요구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에는 현재의 고착화된 평면유형은 다양화되고 있는 주거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면이 미래의 주거공간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단언 할 수 없다.

주택평면의 변화는 급격히 일어나지 않으며, 그 전형적인 특성은 문화적 지속성으로 인하여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 정희원(주저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희원(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 정희원, 한성대학교 학점대학 실내디자인전공강사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7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7도시재생B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평면의 실 크기와 치수들은 계속적으로 미래의 주거공간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의 평균적 주거수준은 미래의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으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주목하여 본 연구는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된 규모인 32평형대(전용면적 85m<sup>2</sup>)와 25평형대(전용면적 65m<sup>2</sup>)의 평면들을 선택하여, 각 실의 크기와 치수를 조사함으로써 평면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요구수준에 대응하는 평면유형을 도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평면의 각 실 크기와 치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북권(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신도시(부천시, 상동신도시)의 3개 권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평면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사례는 인터넷의 부동산 사이트 2곳(부동산114, 부동산뱅크)을 선정하였으며 사이트 선정의 기준은 각 사례 평면도의 유무 및 각 도면의 치수와 정확성을 근거로 하였다. 규모에 따른 평형별로는 32평형대(전용면적 85m<sup>2</sup>) 229개와 25평형대(전용면적 65m<sup>2</sup>) 83개를 선택하여 총 312개를 조사하였다. 입주년도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 주체로는 민간건설사에 의해 지어진 평면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급세대 중 가장 보편적인 평면을 택하였다. 이때 한 권

역안에서도 각 지역별로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도록 안배 하였으며, 연도, 건설사별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선정된 아파트 평면들의 각 실중에서도 거실, 안방, 방 1, 방2, 부엌의 면적과 치수를 벽 중심거리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에 따라 세부측정기준<sup>1)</sup>을 두어 그룹별, 권역별 분석하였다.

## II. 아파트 각 실 크기와 치수에 대한 사례분석

### 1. 그룹과 권역별 각 실 치수의 조사분석

#### 1) A그룹 (전용면적 85㎡)

A그룹의 권역별 각 실의 전면 폭과 깊이, 전면 폭과 깊이의 비례 및 면적은 <표 1>과 같고 각 실의 평균치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실의 경우 전면 폭은 강남권과 강북권이 평균 4,500mm 전후, 신도시는 4,600mm 전후이며 깊이는 강남권과 강북권은 3,800mm 전후로, 신도시는 3,700mm 전후로 나타났다. 안방의 전면 폭은 4,200mm 전후로, 깊이는 3,800mm 전후로 나타났고, 방1의 전면 폭은 3,200mm 전후이며, 깊이는 3,300mm 전후로 나타났다. 방2의 전면 폭은 3,000mm 전후이며, 깊이는 3,100mm 전후로 나타났으며 부엌의 전면 폭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신도시의 경우는 3,750mm인 반면, 강남권은 3,422mm로 나타나 대략 300mm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깊이는 강남권은 3,500mm, 강북권은 3,650mm, 신도시는 3,150mm로 권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각 실의 전면 폭과 깊이의 비례를 살펴보면 강남권은 거실 0.85, 안방 0.93, 방1 1.06, 방2 1.02, 부엌 1.07로 나타나 방2가 정방형에 가까웠고 거실과 안방은 전면폭이 깊이보다 긴 장방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강북권은 거실 0.85, 안방 0.93, 방1 1.06, 방2 1.05, 부엌 1.18로 나타나 거실, 안방, 방1의 경우는 강남권의 비례와 같았다. 신도시는 거실 0.80, 안방 0.92, 방1 1.02, 방2 1.03, 부엌 0.86로 나타나 방1과 방2는 정방형에 가까웠고 거실과 안방은 전면 폭이 긴 장방형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각 실의 면적을 살펴보면 강남권은 거실이 17.35㎡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방 16.02㎡, 부엌 11.82㎡순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은 거실이 17.29㎡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안방 16.35㎡, 부엌 11.72㎡순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는 거실 16.87㎡, 안방 15.51㎡, 부엌 11.67㎡로 나타나 모든 권역에서 거실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방, 부엌, 방1, 방2 순으

로 나타났다.

#### 2) B그룹 (전용면적 65㎡)

B그룹의 권역별 각 실의 전면 폭과 깊이, 전면 폭과 깊이의 비례 및 면적은 <표 2>와 같고 각 실의 평균치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실의 경우 전면 폭은 3,650mm 전후이며 깊이는 3,500mm 전후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었으나, 신도시의 경우 전면 폭이 200mm 정도 크게 나타났다. 안방의 경우도 전면폭은 3,650mm 전후이며 깊이는 3,500mm 전후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었으나, 신도시의 경우 전면 폭이 100mm 정도 크게 나타났다. 미세한 차이이나 신도시의 경우 거실과 안방의 전면 폭을 강남권과 강북권보다 크게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방1의 경우 전면 폭은 강남권에서는 3,000mm 전후이나 강북권은 2,700mm 정도로 작게 나왔고, 깊이는 2,950mm 전후로 권역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방2의 경우 전면 폭은 2,700mm 전후로 깊이는 2,800mm 전후로 나타났으나, 강북권의 전면 폭과 강남권의 깊이가 100~150mm 정도 작게 나타났다. 부엌의 경우는 전면 폭은 2,700mm 전후로 깊이는 2,800mm 전후로 나타났으나, 신도시의 경우 전면 폭 2,950mm와 깊이 3,050mm로 강남권과 강북권보다 크게 나타났다.

각 실의 전면 폭과 깊이의 비례를 살펴보면 강남권은 거실 0.98, 안방 0.99, 방1 0.99, 방2 1.03, 부엌 1.08로 부엌을 제외한 모든 실이 정방형에 가까웠다. 강북권은 거실 0.98, 안방 0.96, 방1 1.11, 방2 1.12, 부엌 1.09로 거실과 안방은 정방형에 가까웠고 나머지는 깊이가 전면 폭보다 긴 장방형 형태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거실 0.91, 안방 0.96, 방1 1.02, 방2 1.05, 부엌 1.06으로 안방과 방1이 정방형에 가까웠고 거실은 전면 폭이 깊이 보다 긴 장방형을 띠고 있었다.

각 실의 면적을 살펴보면 강남권은 안방이 13.05㎡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실 12.97㎡, 방1 8.87㎡순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은 거실이 12.91㎡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안방 12.69㎡, 방1 8.17㎡순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는 거실 13.59㎡, 안방 13.26㎡, 부엌 9.08㎡로 나타나 모든 권역에서 면적의 순서가 달랐으나 방2가 가장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 3) 권역별 각 실 평균 치수의 비교

권역별 각 실의 전면 폭은 A그룹의 경우 지역에 상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부엌의 경우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신도시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B그룹의 경우 안방을 제외한 모든 실에서 권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특이한 점은 B그룹의 경우 강남과 신도시에서 방1과 방2의 전면 폭이 긴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강남과 신도시 아파트 평면이 어느 정도 보수적인 개념에서 탈피했음을 보여준다. 즉 안방 대신 자녀실의 조건을 더욱 좋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신도시 거주자들이 주로 자녀가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을 염두에

1) 세부 측정기준: 거실 깊이는 벽 중심으로부터 인접한 방의 벽이 끝나는 곳까지의 치수를 측정하였는데, 이때 인접한 방이 두 개일 경우에는 둘 중에서 긴 벽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발코니는 확장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는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2005년도 이후 발코니의 확장을 전제로 실의 깊이가 의도적으로 작게 계획된 사례가 몇 사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의 사용의 규범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발코니를 확장한 실의 치수를 조사하였다. 한편 부엌과 같이 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인접한 실의 벽 경계가 끝나는 곳까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둔다면 자녀 위주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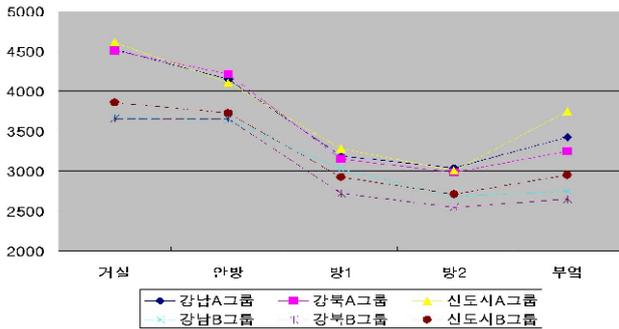


그림 1. 그룹별, 권역별 각 실의 전면 폭

A그룹과 B그룹 간의 각 실 깊이를 비교해 보면, 부엌을 제외하고는 대략 300mm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A그룹에서는 권역별로 거실과 부엌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도시의 부엌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B그룹의 경우에도 거실, 안방, 방1, 방2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엌의 경우 권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강북의 경우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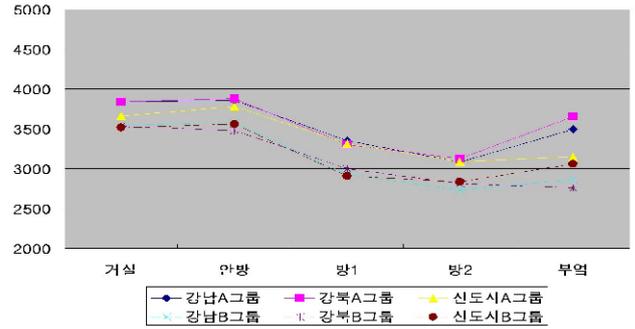


그림 2. 그룹별, 권역별 각 실의 깊이

전면 폭과 깊이의 비례를 살펴보면 A그룹의 경우 거실과 안방은 전면 폭이 긴 장방형으로 나타났으며, 부엌의 경우는 권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강북의 경우는 깊이가 긴 장방형을 나타냈고 신도시의 경우는 전면 폭이 긴 장방형을 보였다. B그룹의 경우 안방만이 정방형 형태를 보였으며, 부엌의 경우 깊이가 긴 장방형을 띠고 있다.

특이한 점은 각 실의 전면 폭과 깊이의 비는 평형대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위주호 내에서 각 실의 위치와 배치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룹별, 권역별 각 실의 전면 폭, 깊이, 면적은 A그룹과 B그룹간의 일

표 1. A그룹의 각 실 규모 및 치수

		강남권					강북권					신도시				
		거실	안방	방1	방2	부엌	거실	안방	방1	방2	부엌	거실	안방	방1	방2	부엌
전면폭 (mm)	최대	5650	4900	4090	3900	5040	5000	4700	4100	3500	5055	5000	4880	4400	3550	4640
	평균	4520	4150	3187	3036	3422	4505	4213	3146	2986	3250	4611	4106	3278	3006	3750
	최소	3370	3500	2500	2610	2600	3560	3450	2850	2020	2400	4080	3500	2700	2590	2770
깊이 (mm)	최대	6100	5425	5425	4700	4930	5200	4400	4140	3800	4960	4140	4420	3920	3835	4370
	평균	3839	3856	3350	3081	3493	3839	3881	3304	3124	3655	3662	3778	3311	3088	3146
	최소	3060	3100	2300	2300	2300	3000	3210	2700	2020	2100	3210	3320	2620	2500	2300
전면폭과 깊이의 비례	최대	1.31	1.35	1.76	1.57	1.67	1.24	1.26	1.44	1.74	1.74	1.01	1.18	1.40	1.23	1.46
	평균	0.85	0.93	1.06	1.02	1.07	0.85	0.93	1.06	1.05	1.18	0.80	0.92	1.02	1.03	0.86
	최소	0.60	0.69	0.64	0.74	0.56	0.71	0.80	0.72	0.63	0.57	0.68	0.80	0.64	0.75	0.53
면적 (㎡)	최대	28.82	26.26	16.71	14.10	16.32	21.84	19.32	12.54	11.26	17.46	19.32	21.57	14.10	13.42	14.84
	평균	17.35	16.02	10.64	9.44	11.82	17.29	16.35	10.35	9.33	11.72	16.87	15.51	10.82	9.30	11.67
	최소	11.53	11.55	7.25	6.90	8.03	12.45	11.24	8.70	5.20	7.64	14.52	13.44	8.10	7.40	8.49

표 2. B그룹의 각 실 규모 및 치수

		강남권					강북권					신도시				
		거실	안방	방1	방2	부엌	거실	안방	방1	방2	부엌	거실	안방	방1	방2	부엌
전면폭 (mm)	최대	4400	4400	4200	3215	3600	4140	4200	3600	3180	3230	4450	4100	4100	2960	4450
	평균	3671	3640	3022	2682	2748	3653	3653	2720	2546	2646	3858	3723	2921	2707	2948
	최소	3000	3290	2320	2290	2050	3000	3400	2235	2100	2200	3490	3490	2400	2400	2300
깊이 (mm)	최대	5600	5000	3580	3670	4000	4540	3820	3530	3240	3390	3935	3935	3540	3230	4240
	평균	3545	3582	2931	2729	2865	3532	3477	2998	2812	2756	3515	3561	2909	2835	3062
	최소	2500	3000	2500	2250	1800	3000	2700	2600	2400	1800	2940	3200	2530	2520	2030
전면폭과 깊이의 비례	최대	1.70	1.39	1.24	1.41	1.67	1.20	1.10	1.35	1.41	1.50	1.06	1.09	1.25	1.22	1.57
	평균	0.98	0.99	0.99	1.03	1.08	0.98	0.96	1.11	1.12	1.09	0.91	0.96	1.02	1.05	1.06
	최소	0.69	0.78	0.64	0.81	0.71	0.77	0.64	0.87	0.82	0.67	0.78	0.79	0.62	0.90	0.60
면적 (㎡)	최대	19.89	18.52	12.58	9.58	12.60	18.30	13.77	11.88	8.27	10.03	16.93	15.66	10.37	9.40	14.37
	평균	12.97	13.05	8.87	7.32	7.90	12.91	12.69	8.17	7.15	7.29	13.59	13.26	8.44	7.68	9.08
	최소	9.00	10.53	6.28	5.76	4.71	10.80	10.80	6.71	5.67	6.00	10.33	11.20	6.53	6.30	6.67

관적이고 분명한 크기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비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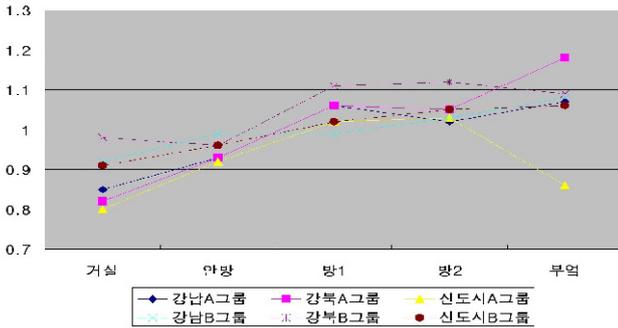


그림 3. 그룹별, 권역별 각 실의 전면폭과 깊이의 비

권역별 각 실의 면적은 A그룹의 경우 큰 차이가 없으나 안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신도시의 안방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작게 나타났고, 거실면적도 타 지역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B그룹의 경우 신도시의 거실과 안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부엌의 경우도 강남권과 강북권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B그룹은 경우 방1을 제외한 모든 실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룹간 각 실 면적을 전면폭과 깊이의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거실 및 안방의 면적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단위주호의 면적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실, 즉, 안방과 거실의 실 면적에 차별을 둬으로써 아파트 면적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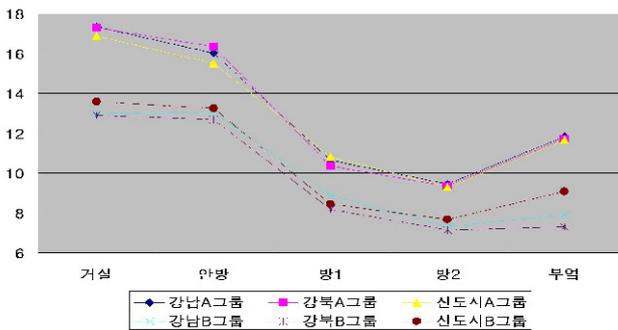


그림 4. 그룹별, 권역별 각 실의 면적

이는 또한 32평형대나 25평형대나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녀실을 거의 최소한의 규모로 계획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안방이 자녀실(방1과 방2)보다 현저히 크게 계획되는 것은 실의 사용자에게 따라 면적 배분의 규범이 가족구성원간의 위계에 따라 많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그룹과 권역별 각 실 치수의 분포특성

### 1) A그룹

A그룹의 거실 전면 폭은 4,500mm 전후로 분포하고 있다. 강북권과 신도시의 경우 4,500mm 전후로 집중분포하

고 있는 반면 강남권의 경우는 3,350~5,750mm까지 분산된 형태를 나타냈다. 깊이 또한 강북권과 신도시가 3,800mm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거나 강남권의 경우 3,050~6,100mm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즉, A그룹의 거실은 전체적으로 전면 폭이 긴 장방형 형태를 가졌으나 강남권 거실의 경우는 고정적이지 않았다.

안방의 전면 폭은 4,200mm, 깊이는 3,800mm에 집중분포 하였다. 권역별 큰 차이 없이 A그룹 안방은 전반적으로 전면 폭이 깊이보다 300~400mm정도 큰 장방형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5,425mm로 조사된 특이한 사례도 있었다.

방1의 전면 폭은 강북권과 신도시의 경우 3,200mm 전후로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나 강남권의 경우 다소 넓게 분포하여 작은 사례의 경우 2,500mm도 존재하였다. 깊이 또한 강북권과 신도시의 경우 3,300mm를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나 강남권의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나 깊이가 5,425mm로 조사된 사례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방1의 형태는 깊이가 긴 장방형의 형태를 나타냈다.

방2의 전면 폭은 2,900mm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깊이는 3,100mm 전후로 분포되어 나타난다. 전면 폭은 집중분포되어 고정적인 반면 모든 권역에서 깊이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깊이가 긴 장방형임을 알 수 있다.

부엌의 경우는 다른 실과는 다르게 매우 다양하고 넓게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전면 폭은 3,800mm에 약간 집중되어 나타났으나, 강북권의 경우는 3,000mm에도 몇 개의 사례가 나타났다. 깊이의 경우도 넓게 분산되어 나타났는데 강북권은 깊이가 긴 장방형으로, 신도시는 전면 폭이 긴 장방형 형태를 띠었다. 즉 부엌은 다른 실에 비하여 전면 폭과 깊이에 대한 규정적인 치수가 없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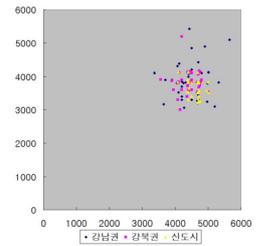


그림 5. A그룹 거실의 전면 폭과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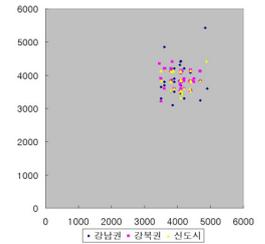


그림 6. A그룹 안방의 전면 폭과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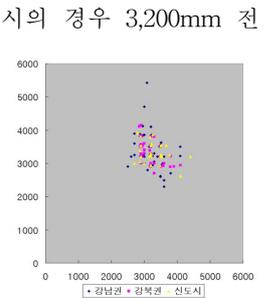


그림 7. A그룹 방1의 전면 폭과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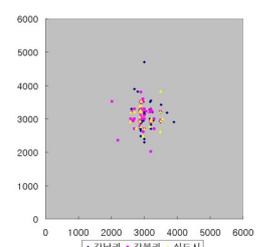


그림 8. A그룹 방2의 전면 폭과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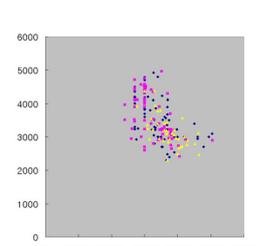


그림 9. A그룹 부엌의 전면 폭과 깊이

2) B그룹

B그룹 거실의 전면 폭은 3,300~3,800mm에 고르게 분포되어 A그룹과 비교해 보면 약 800mm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깊이는 3,500mm에 약간 집중되어 나타나지만 강남권의 경우 2,500~5,600mm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강남권이 강북권과 신도시에 비해 깊이가 긴 장방형 형태를 보인다.

안방의 전면 폭과 깊이는 일정한 치수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전면 폭은 3,300~3,800mm로 권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깊이는 3,500mm에 다소 집중되어 분포하였으며, 강북권과 신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방1의 전면 폭은 2,600~2,800mm사이에 집중분포되어 있으며, 3,000mm가 넘는 사례도 몇 개 나타났다. 깊이는 2,600mm,과 3,000mm에 약간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강남권은 전면 폭이 긴 형태를, 강북권은 깊이가 긴 형태를 나타냈으며 신도시의 경우는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방2의 전면 폭은 2,600mm에 약간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강북권의 경우 2,100mm정도의 사례도 보였다. 깊이는 2,600mm과 2,900에 약간 집중되어 방2는 깊이가 전면 폭보다 약간 긴 형태를 나타냈다.

A그룹과 마찬가지로 부엌의 경우는 다른 실과는 다르게 매우 다양하고 넓게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전면 폭은 2,300~3,000mm까지 분포되어 나타났으나, 강남권과 신도시의 경우는 3,600mm에도 몇 개의 사례가 있었다. 깊이의 경우도 넓게 분산되어 나타났는데 강남권과 강북권은 깊이가 약간 긴 형태로, 신도시는 전면 폭이 더 긴 형태를 보여 다른 실에 비하여 전면 폭과 깊이에 대한 규정적인 치수가 없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부엌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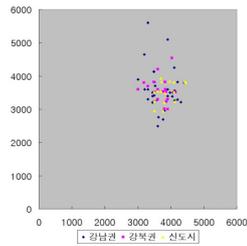


그림 10. B그룹 거실의 전면 폭과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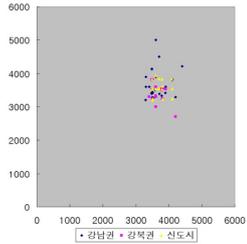


그림 11. B그룹 안방의 전면 폭과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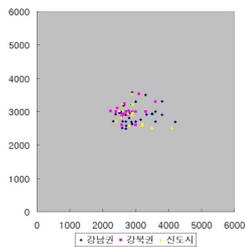


그림 12. B그룹 방1의 전면 폭과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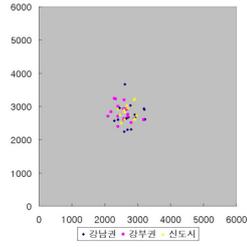


그림 13. B그룹 방2의 전면 폭과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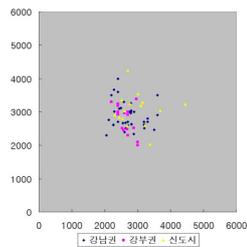


그림 14. B그룹 부엌의 전면 폭과 깊이

III. 아파트 평면의 유형 및 형태 분석

1. 아파트 평면의 유형

강남권, 강북권, 신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 평면들의 유형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평면의 유형

분류	A그룹(85㎡)				B그룹(65㎡)				
	강남	강북	신도시	계	강남	강북	신도시	계	
hall형	3bay	46	39	38	123	12	3	10	25
	2bay	24	34	3	61	10	15	6	31
편복도형	3bay	0	0	0	0	1	0	0	1
	2bay	0	0	0	0	8	8	0	16
타워형	3bay	25	9	3	37	6	0	0	6
	2bay	6	1	1	8	3	1	0	4
계	101	83	45	229	40	27	16	83	

A그룹(85㎡)에서는 홀형 3bay(53.7%)와 2bay(26.6%)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B그룹(65㎡)에서도 홀형 3bay(30.1%)와 2bay(37.3%)에 비교적 편향되어 나타났다. 즉 85㎡와 65㎡ 모두 홀형의 형태가 주류였다. 즉, 32평형대와 25평형대 홀형에서 전면 3bay의 진화는 전면 폭의 확대에서 오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전면 3베이 홀형 평면 유형들은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보급되는 아파트 평면 중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대표적 평면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각 실의 크기와 치수는 현재 거주자들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다.

표 5. 타워형 평면의 외기와 면한 면

분류	A그룹(85㎡)				B그룹(65㎡)				
	강남	강북	신도시	계	강남	강북	신도시	계	
타워형	3면	9	0	2	11	4	0	0	4
	2면	17	9	1	27	2	1	0	3
	1면	5	1	1	7	3	0	0	3
계	31	10	4	45	9	1	0	10	

또한, A그룹(85㎡)에서는 편복도형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2000년 이후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타워형이나 홀형으로 2~4호 조합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편복도형 아파트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계획시부터 미연에 방지하면서도 타워형과 홀형이 가지는 각 주호만의 영역성을 강조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워형 3bay는 A그룹의 강남권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2~3면이 외부와 면해있는 즉, 전망과 일조권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각 실에서 외기와 면해 다양한 전망을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주변의 건물들로 인한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범위안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 2. 전형적 평면의 형태

전형적 아파트 평면의 유형 분류로 조사된 사례들을 단위주호의 형태에 따라 재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은 각 실의 전면 폭과 깊이가 주호의 평면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통계프로그램(spss12.0)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각 실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주호의 평면형태는 전면에 위치한 실의 개수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출입구의 방향도 근소한 연관성을 보였다.

표 6. 평면의 유형

분류	A그룹(85㎡)				B그룹(65㎡)				
	강남	강북	신도시	계	강남	강북	신도시	계	
□형	가로형	20	5	1	26	2	0	0	2
	정방형	16	26	2	44	5	10	3	18
	세로형	7	9	2	18	12	13	3	28
┌형	가로형	52	40	37	129	14	4	10	28
	세로형	1	0	0	1	3	0	0	3
이형	가로형	4	2	3	9	4	0	0	4
	세로형	1	1	0	2	0	0	0	0
계	101	83	45	229	40	27	16	83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 전면 실의 개수에 따른 결과에 의하면, A그룹의 전형적인 평면의 형태는 3bay hall 형에 전면 폭이 깊이보다 긴 ┌자 형태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대상의 56.33%를 차지하였다. B그룹의 전형적인 평면의 형태는 2bay hall형에 깊이가 전면 폭보다 긴 □자 형태와 3bay hall에 전면 폭이 깊이보다 긴 ┌자 형태가 각각 33.73%씩 대등하게 나타났다. A그룹(85㎡)의 71.6%는 전면 폭이 깊이보다 긴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깊이가 전면 폭보다 깊은 세장형 주택은 9.2%로 나타났다. B그룹(65㎡)은 41.0%가 전면 폭이 깊이보다 긴 형태를 나타냈으며, 깊이가 전면 폭보다 깊은 형태도 37.3%나 차지하였다.

즉, 전형적 아파트 평면의 형태는 평형대별로 다르게 존재하며 이러한 단위주호의 고착된 형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나 가까운 미래의 다양한 주거수준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진행되고 계획될 아파트 평면의 형태는 고착화와 획일화를 탈피하고 다양성을 가지는 형태가 바람직 할 것이며, 다가올 미래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수준에도 같은 범위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아파트에서 보편화된 32평형대(전용면적 85㎡), 25평형대(전용면적 65㎡)를 중심으로 강남권, 강북권, 신도시로 나누어 각 실의 크기와 치수, 전면폭과 깊이의 비, 평면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각 그룹별, 권역별로 비교한 결과,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크게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각 평형별로 조사된 아파트 평면들이 지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된 보편적 형태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한편 각 실의 치수와 규모 및 형태에서 특징적인 양상들이 나타났으며, 각 실들 간의 상대적 치수와 규모 및 형태 역시 특정한 양상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각 실 계획에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조사한 평형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적 주거수준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각 평형별로 한정된 면적 안에서 최적화된 경제적 실 배분과 함축적인 실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 계획이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미래에는 최소주거수준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평면을 중심으로 각 실의 규모와 전면폭 및 깊이의 치수, 전면폭과 깊이의 비례관계로 볼 수 있는 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적인 주거기준의 도출을 위해서는 평균적인 주거규모뿐 아니라 정책적인 주거기준들도 함께 논의되어 총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하나의 근거적 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며, 주거기준의 도출과 각 실의 규격화를 위한 세부적인 실 치수의 도출은 후일의 연구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1997), 주거기준 도입 방안 연구
2. 국토연구원(1991), 최저주거기준의 규정에 관한 연구
3. 김도연(2008)외 3인, 최소주거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 춘계논문집, pp.203~208
4. 대한주택공사(2000), 최저주거기준 도입과 공공부분의 역할-공사창립 38주년 기념정책토론회
5. 대한주택공사(2007), 주택랜드북 2007
6. 박환용(2000), 효율적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수준 지표설정, 대한국토·도시학회지 35(2), pp. 59~71
7. 배순석(2000),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의의와 도입방안, 대한주택공사 38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pp. 19~57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저소득층 주택정책 방향」
9. 서울특별시(2007), 2007년 서울서베이, 서울특별시
10. 정성자(1991), 최소주거기준의 규정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1. <http://www.kosis.kr>
12. <http://iksan.jugong.co.kr>
13. <http://www.neonet.co.kr>
14. <http://www.r114.co.kr>